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종계 감축 없이는 육계산업 미래 없다

정부의 관심과 업계의 노력이 있어야



를 빼더라도 전년에 비해 7%가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종계입식수는 658만 6천수로 2011년에 비해 3.5% 증가하면서 금년도 육계 생산 과잉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4분기 실용계 전년대비 8.2% 증가

현실적으로 종계감축이 육계산업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씨앗을 줄이지 못하면 지속적인 안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원종계는 연 13~14만수가 적정수인 것을 감안하면 35~40%, 즉 7~8만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국내에서 로스, 아바에이카, 코브, 인디안리버가 대표적인 품종이며, 4개의 품종을 놓고 원종 4사(삼와육종, 하림, 한국원종, 청정원종)가 물량 확보를 위해 밀고 당기는 각축전을 보이는 동안 정부의 무관심 속에 사육수수는 통제 밖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사)대한양계협회에서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금년도 1/4분기 육용 실용계 생산잠재력은 1억 7,445만 7천수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1억 6,119만 5천수) 대비 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년 경기 또한 비관적으로 출발하고 있다.

육계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육수수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하는 쿼터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원종계 쿼터제는 지난 2003년 11월 당시 적정사육수수인 9만수의 원종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종 3사가 9만4천수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격 시행된 바 있다. 이후 육계가격이 안정화를 찾은 바 있으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 AI) 등이 발생하면서 수수감축에 따른 장기 호황으로 이어지면서 쿼터제가 무용지물이 되었던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당시 업계의 노력도 있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쿼터제를 실현시킬 수 있었다.

사육수수 조절 등 자구책 절실

원종계와 종계 감축 없이는 육계산업의 미래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종계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종계도 계열화 사업이 상당부분(90%) 진

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협조없이 종계를 감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해 수입된 닭고기 물량이 12만 6천수(잠정)로 지난해 11만 8천수 보다 6%가 증가하였고, 하림에서 닭고기 수입을 자제키로 하면서 다소 주춤하겠지만 중국과의 FTA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닭고기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공산이 크다. 매년 3~4%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도계물량의 경우 지난해 7억 9천만수(잠정)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닭고기 소비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문제는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는데 있다.

정부의 관심속에 업계의 비장한 각오를 통한 수수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가뿐 아니라 계열사들의 부도가 속출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거 쿼터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던 경험을 비추어 서로 관심과 협력 속에 계사년 육계업계가 안정화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양계농가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해 양계농가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는 닭고기 자조금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임직원 일동

닭고기 자조금 거출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3원, 삼계 1.5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2013년 신년사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홍 재

어느 덧 임진년(壬辰年) 한 해도 저물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사랑과 기쁨의 좋은 선물이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2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양계인들에게는 기쁨과 고난이 함께했던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계열사의 자조금 동참, 축산계열화법 제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뜻 깊은 한 해로 기억됩니다.

2013년을 맞으며 새해에는 우리 양계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 뿐 아니라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한·미 FTA 등의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양계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한 해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장기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육 증가와 국내산 닭고기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하여 생산농가와 계열사 모두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지난 한 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보다 닭고기자조금 소비홍보사업을 통한 소비촉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지난 한 해 공격적인 소비홍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국산닭고기 소비촉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계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양계 농가의 생산성은 병아리 품질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계인과 종계인이 계열사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계 농가들에게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축산분야에서 양계산업은 타 축종에 비해 홀대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집된 힘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조금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계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조금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부족한 것은 정부에 지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조금이야말로 우리 양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쪼록 2013년에는 닭고기자조금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양계농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3년 계사년을 맞이하여 우리 양계산업이 세계를 향하여 비상하고 모든 양계인들이 행복하고 웃음 짓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대의원장님
한 병 권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축산업계의 많은 변화가 생겼던 한 해였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축산농가경영에 많은 제약이 예고되고 있

고 축산업허가제 도입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등 농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에도 벅찬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증가한 닭고기 수입물량과 국내 계열사의 확장으로 인한 육계 공급량 과잉과 경기침체에 따른 닭고기 소비위축으로 말미암아 일부 계열업체가 도산하는 등 육계산업 전반의 불황의 그늘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농가들이 더욱 단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농가들의 활동의 가장 큰 지원군은 현

재로서는 닭고기 자조금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사)한국계육협회와 (사)한국도종닭협회가 자조금에 동참하면서 올해 닭고기자조금 예산안은 19억 2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47억 2천6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자조금 살림을 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육계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다양한 소비홍보활동과 연구활동, 농가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축산업계의 어려움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가축사육에 있어 제약

이 늘고 있으며, 타국과의 FTA로 인해 갈수록 시장장벽은 낮아짐에 따라 국내 육계농가간, 계열사간의 경쟁이 아닌 세계 각국 닭고기 수출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계사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이 발간되는 닭고기자조금 소식지와 더불어 자조금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자조금사업을 통해 육계산업이 한걸음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대한양계협회
회장
이 준 동

대망의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육계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불황이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

다. 최근 일부 계열사들의 부도, 합병, 인수 소식들이 들려오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새해 육계업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되는 등 육계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고됩니다. '축산계열화법'은 계열사와 계약사육 농가간의 갈등과 반목을 없애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곧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듬어져 공포될 예정입니다. 농가분들

은 관련 내용을 꼼꼼히 챙겨 육계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대한양계협회에서는 금년을 육계산업의 안정화는 물론 계열화 사업에 대한 재정립을 이루는 해로 삼을 계획입니다.

지난해 20만 수가 넘는 원종계가 수입되면서 금년 육계경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계 및 종계의 자율감축이 바람직합니다만 쿼터제를 통해서라도 육계경기 안정화를 기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원종계사들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산 닭고기 우수성 홍보 및 닭고기 수입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닭고기자조금 소식지가 신문형식으로 한 달에 두 차례씩 육계인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자조금 거출에도 적극 동참하여 육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각 가정에 항상 건강과 만복이 깃들시길 간절히 기원하며 신년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성우

육계농가 및 관련업계 종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2년은 모두 잘 아시다시피 축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많

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육계산업은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닭고기 수입물량 증가, 폭염피해 등으로 인해 어느 해보다 힘들었습니다.

닭고기 생산액은 2000년 8,208억 원에서 2011년에는 2조 1,86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도 2000년 6.9kg에서 2011년에는 11.4kg으로 증가했습니다. 육계산업의 이런 비약적인 성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와 산업관계자 여러분이 열심히 흘린 땀방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마냥 장밋빛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등 시장개

방의 가속화는 불가피하며, 최근 국제 곡물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가의 근심을 덜기 위해 사료가격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타피오카 가공장을 2016년까지 완료하고 곡물메이저들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은 아프리카, 러시아 등에 옥수수 해외농장 진출을 본격 추진해 해외곡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도 닭고기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 활동 등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고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모든 축산물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닭고기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축산인 스스로 대비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만 합니다. 자조금이 그 하나의 방편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당장 눈 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조금 사업 확대를 위해 농가 및 계열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동안 보여주시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 하시는 일마다 축복이 가득 하길 바랍니다.



(사)한국계육협회
회장
정병학

전국에서 닭고기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 그리고 계열주체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우리 닭고기업

계는 공급과잉과 수입육 증가, 소비위축으로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협회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계열사 대표들과의 회의도 가졌고, 사육농가들의 의견도 들어 그때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협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업계의 숙원사항인 닭고기 및 종축의 수급조절 근거를 마련하였고, 정부에 건의하여 부화장 HACCP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부화장의 난계대 질병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축산물 검사제도를 개선하여 회원사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각종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하여는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올해 협회에서는 우리 앞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법에 의한 닭고기 및 종축의 생산조정, 불합리한 가격체계의 개선, 계열주체 상호간 및 계열주체와 계열

농가와 신뢰구축, 자조금을 통한 닭고기 가치 홍보에 중점 목표를 두고,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앞의 사안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닭을 사육하는 농가와 계열업체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회장
김연수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닭고기 산업은 수많은 파

고를 넘었습니다.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과 과잉 공급이 맞물려 출하 지연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불어 닭 강정 시장의 확대로 닭고기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산업은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염, 태풍, 폭설 등 천재지변까지 덮쳐 농심(農心)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 한·EU FTA 발효, 한·중, 한·중·일 FTA 협상 등 축산대국과의 잇단 FTA와 사료값, 유통비 등 생산비 증가 등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하지만 牛步萬里(우보만리)라 했습니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며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 소와 같은 우직함으로 이 산업을 영위해 나간다면 반드시 지난해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은 결실을 볼 것입니다. 닭고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지역별 행사, 수출 프로모션, PPL 등 온·오프라인 홍보,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수급조절 등 적재적소에 사용된 닭고기자조금은 산업

발전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합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자조금 거출에 적극 협조하고 轉禍爲福(전화위복)의 마음가짐으로 위기 속에 닭고기 산업을 지켜나간다면, 국민과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癸巳年, 모든 양축농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癸巳年 시무식 열어...국산 닭고기 소비촉진 위해 최선 다할 것

각 단체는 지난 1월 2~3일 기간 중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2013년 업무에 돌입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이홍재 위원장은 시무식에서 “2013년에는 소비홍보사업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

고 양계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올해에는 육계산업의 안정화와 계열화 사업에 대한 재정립을 이루는

해로 삼을 것이며,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은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회 임직원 모두 함께 협력해서 현 위기상

황을 돌파하자”며 “생산조절로 가격을 안정시키고,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은 “올해는 토종가축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며,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H O T
ISSUE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최선을..

2~3년 주기로 조류인플루엔자 극성... 철새 물러들 때 방역 신경 써야

국내에 2~3주년을 주기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본격적으로 겨울철새가 물러오면서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청정지역인 제주도의 야생철새에서 AI 양성반응이 나타나면서 다시 AI의 공포가 물러오는 것이 아닌가 염려되고 있다. 한 겨울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AI 현장방역 가상훈련(CPX)을 실시하는 등 AI발생에 대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처음 AI가 전국을 흔들어 놓은 이후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쳐

발생한 바 있으며, 2년을 주기로 발생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겨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대목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11월 전북 익산 만경강의 야생조류를 시작으로 꾸준히 전국에 걸쳐 H5, H7형 저병원성 AI가 발생되면서 업계가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부는 해당 야생조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으로부터 10km 이내 지역에 대한 축사 등의 소독을 실시하는가 하면, 바이러스 잠복가능성을 감안하여 닭, 오리 등 가금농장에 대해 철

저한 예찰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야생조수 접근차단을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철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문단속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AI는 현재 중국, 베트남 등 17개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시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가에서는 철저한 차단방역을 생활화하고 농장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소독 후 장화나 신발을 갈아 신고 농장을 출입해야 할 것이다.



H O T
ISSUE

더는 피할 수 없는 무허가 양계장 양성화

양성화 지원 조건 충족 못 한 양계장 많아 농민 울상... 수입 축산물에 밀리지 않도록 지혜로운 대안 절실

우리 축산업은 수십 년 동안 터를 지켜온 농민이 있기에 번성했다. 아주 오래 전, 자신의 땅에 작은 양계장을 짓고 닭 등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우리 축산업이 발전했다. 문제는 양계장에 대한 법률적 제재가 1980년대 이후에 시작됐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양계장도 하나의 건축물로 설계할 때부터 반드시 특정 시설을 넣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또한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양계장에 대형화 바람이 불었다. 대형화된 양계장은 폐수, 오수분뇨를 깨끗이 처리하는 시설을 갖췄다.

뒤늦게 무허가 양계장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한때 환경부는 축산폐수 및 오수분뇨 처리법에 따라 닭의 분뇨를 그대로 버리는 무허가 양계장을 법대로 단속하기 시작해 농림부가 속앓이를 했다. 당장 닭을 출하하지 못한 농민은 손해를 입었다.

여론은 농민의 요구를 반영해 무허가 양계장을 양성화하자는 데 풀리기 시작했다. 농림부는 건설부(현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얻어 현행법 범위 내에서 무허가 양계장을 양성화하기로 하고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법규 제한지역에 있는 양계장,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선에 지은 양계장 등은 양성화 혜택을 못 받았다. 축사시설 현대화와 분뇨처리시설 확충에 쓰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무허가 양계장이 속출하면서 불만이 커졌다.

곡물가격 상승, FTA로 밀려드는 값싼 수입 축산물 등으로 휘청거리는데 무허가 양계장 양성화에 투자할 돈이 없다며 하소연하는 농민도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허가 양계장 양성화 자금을 신청한 농민은 많지만, 예산액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소모적인 무허가 양계장 논란은 끝내고, 농민의 걱정은 덜고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현명한 무허가 양계장 양성화 방안이 하루속히 도출되길 기대한다.

H O T
ISSUE

축산업허가제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본격 시행

올해 기업농가부터 축산업허가제 등록 대상... 2016년까지 50㎡ 농가까지 확대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이 담긴 축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업허가제'를 실시한다.

또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도 함께 시행한다. 사육면적이 50㎡ 이상인 축산농가, 축산업 허가대상 축산관계 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나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련 종사자는 2014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농가는 농림부에서 지정한 관할 시·군 소재 교육기관에서, 축산관련 종사자는 도단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대상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해 회원 가입하여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이

나 교육일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내년까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도 재교육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에 1회 이상, 가축거래상인과 차량종사자 등록을 한 사람은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허가·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허가나 등록을 할 수 없고,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축산관계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축산업허가제 진행단계는 다음과 같다.

*자료출처 : 농림수산물식품부

년 도	2013	2014	2015	2016
축종별	기업농가	전업농가	준전업농가	50㎡이상 농가
한육우	100두 이상	50두 이상	30두 이상	7두 이상
젖 소	100두 이상	50두 이상	30두 이상	7두 이상
돼 지	2천두 이상	1천두 이상	500두 이상	60두 이상
닭	5만수 이상	3만수 이상	2만수 이상	1천수 이상
오 리	1만수 이상	5천수 이상	3천수 이상	160수 이상

H O T
ISSUE

0 0 4

한·미 FTA 발효 1년... 위기가 곧 기회다!

수입 닭고기 관세 10~12년 사이 철폐... 정부의 재정 지원과 신선함으로 승부수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이 지난해 발효되면서 축산물 분야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입 닭고기 관세를 순차적으로 철폐하는 동안 양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지원책을 세웠다.

한·미 FTA 협상 결과 닭고기 품목은 통닭 18~20%, 냉동(가슴살, 날개) 20%였던 현행 관세율을 12년간 순차 철폐한다. 또한 현행 관세율이 18%인 냉장육, 20%인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 30%인 닭고기 가공품은

10년 간 관세를 순차 철폐한다. 기타 육류 품목인 오리는 현재 18~2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냉장육은 10년 간, 냉동육은 12년 간 순차 철폐한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 맞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질병근절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병아리 이력관리 체계 구축 ▲우수 병아리 공급 확대 ▲전문 종계장 육성 ▲대형닭(2.5kg 이상) 생산 늘리는 것 등이 요지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 ▲농어업 재해보험의 축산업 부문 대상 품목도 11개에서 15개로 늘리는 등 자금 지원 폭을 넓혔다. 또한 ▲축사의 감가상각연수를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 ▲농상속공제액(상속세)을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등 우대 정책을 내놓았다.

현재 정부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일 FTA)과 한·EU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

중·일 FTA가 체결되면 저렴한 중국산 축산물이, 한·EU FTA가 체결되면 EU는 양심적인 먹을거리로 국내 축산물을 공략할 것이다.

그러나 수입 닭고기보다 국내산은 '신선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양계업 종사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계사 시설 현대화 ▲질 높은 생산자 교육 ▲닭고기 이력추적제 등을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KBS·JTBC 등 주요 언론사, 양계농가의 어려움 집중 보도



닭가죽의 하락으로 닭가공업체가 도산하며 양계업계의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오자, 주요 언론사들은 이를 심도 있게 다루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JTBC는 지난 8일 '뉴스9'를 통해 <양계 농가, 최악의 위기... '도산 번호표 뽑아든 심정'>이란 제목으로 양계농가의 어려움과 현실을 방영하였다. JTBC는 1년 사이 닭값이 30%나 곤두박질치면서 충남의 한 닭가공업

체가 부도나자, 계열농가들이 빚더미에 오르고 사육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도했다. 양계산업이 이토록 위태롭게 된 데에는 계속되는 불황 탓에 국내산 닭 소비가 줄었으며, 특히 값싼 외국산 닭과 원종계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계열사들이 도산 번호표를 뽑은 것이나 다름없어, 5대 기업 안의 계열사 중 조만간 도산할 회사가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해 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시장 자율에만 맡기고

있다고 대답해 무책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KBS 역시 9일 '뉴스9'에서 양계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집중 보도했다. 계속되는 불황으로 치킨 관련 프랜차이즈 본점이 문을 닫으면서, 프랜차이즈 등록취소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프랜차이즈 취소 건수는 600건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맘과 정성을 쏟는 양계농가를 위해,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양계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중파방송, 육질 짙기 하며 영양가 풍부한 국내산 닭고기 소개해

최근 MBC와 KBS에서는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장면이 방영돼 화제가 되고 있다.

'뽕이다'로 유명한 가수 김혜연 씨는 MBC '기분 좋은 날'을 통해, 온 가족에게 국내산 닭고기로 백숙을 요리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내산 닭고기는 냉동·유통되는 수입산에 비해, 육질이 훨씬 더 짙기하며 영양가도 풍부해 아이들의 입맛에도 맞고 영양보충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KBS의 한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는 국내산을 이용해 안동식 찜닭을 만드는 과정도 소개됐다. 방송 출연진은 "국내산 닭고기는 유통기간이 짧아 선홍색을 띠며 그 외에도 인증마크를 통해 국내산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화제가 된 프로그램들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내산 닭고기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추진한 간접광고가 반영된 것이다.



명절 특수 앞두고 닭고기 원산지 둔갑 집중 단속...

충주시, 양계농가 지원금 투입 결정

새해를 맞이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계농가를 돕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원산지 표시 점검과 예산 지원 계획이 주요 골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월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닭고기 등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홍보한다. 이어서 1

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 중 제수용품인 닭고기를 포함됐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한 충청북도 충주시는 사료값 인상 및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양계농가 지원사업으로는 양계축사 내

사료급이기 교체 및 청소기 지원을 위해 6,600만원을 투입해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유류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억4,000만원을 지원해 축사 단열과 함께 환기시스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읍면동으로 시달하고 축산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식들자 닭고기자조금 소식지 이렇게 바뀝니다

2013년 계사년을 맞아해 닭고기자조금 소식지가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더욱 풍부한 콘텐츠와 살아있는 기사로 새해에는 농가에 희망과 기쁨을 전하겠습니다.



1 매월 발행하던 소식지를 격주로 발행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양계업 종사자 여러분을 찾아가던 소식지가 발 빠른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발행주기를 단축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양계업 최신 소식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재빨리 반영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행사나 사진 현장을 밀착 취재해 대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자조금 집행내역을 독자에게 투명하고 정직하게 알려 자조금 신뢰 향상을 이바지하겠습니다.

2 기사의 특징을 살려 섹션을 구분했습니다.

각 단체활동, 현장 뉴스 등을 소개하는 'NEWS', 양계업 종사자 또는 관련자 인터뷰와 우수농장 방문기를 실는 'TALK TALK', 현장 마케팅 상황과 전망, 실적 소개, 육계 테크놀로지 정보를 제공하는 'INFORMATION', 재미를 더하는 'CULTURE' 섹션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섹션만 보면 원하는 기사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감 넘치는 사진으로 불거리가 많은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3 기존 A4판형에서 타블로이드 판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양질의 기사를 많이 신고자 무가지 신문 형태로 판형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닭고기자조금은 읽을거리가 풍부한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섹션 별로 페이지의 아웃라인(outline) 색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사진과 광고 등을 배치해 시각효과가 향상됐습니다. 텍스트 크기는 가독성 향상을 위해 13포인트로 키웠으며, 기사 제목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윤고딕체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폭설로 양계장 지붕이 내려앉아 닭이 그대로 죽었다는 보도가 들렸다. 충북의 한 양계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닭 1,500마리가 폐사했다는 뉴스였다. 당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5일부터 내린 눈 때문에 양계장 지붕이 무너진 것 같다"고 말했다. 매해 겨울만 되면 폭설로 계사가 부서져 애꿎은 닭이 폐사했다는 뉴스가 들린다. 올 겨울도 어김없이 폭설과 혹한이 반복되고 있다. 폭설과 추위로부터 계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폭설로 인한 붕괴사고 예방법

우리나라 양계농가 중 약 15~20%가 하우스형 계사로 알려졌다. 비닐하우스형 보온덮개 계사 비율도 꽤 높다. 하우스형 계사는 눈이 조금만 많이 와도 지붕이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보온덮개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눈을 자주 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여름에 차광막을 설치했다면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 차광막

상식알자 폭설과 한파, '계사 지키기' 비상

계사 무너져 폐사하는 닭 급증... 수시로 눈 치우고 적정 온도와 환기 유지해야

이 눈의 압력을 못 이겨 내려앉을 때를 대비한 조치다. 특히 노후화된 계사라면 버팀주주가 튼튼한지 꼭 살펴봐야 한다.

폭설로 교통편이 끊길 것을 대비해 연료와 사료를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또한 급수관과 낱풀이 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추위로부터 닭을 지키는 방법

찬바람이 계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환기는 최저로 실시하되, 계사에서 발생한 유해가스나 먼지 등이 외부로 잘 빠져나가는지 감시한다. 춥다고 환기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닭이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또한 외부 바람과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잘 섞여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팬을 가동한다. 온도 유지를 위해 환기팬과 열

풍기 등 전기기구를 사용한다면, 화재나 누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주 점검해주는 것이 좋다. 낡은 전선은 교체해 주는 것이 안전하다.

1주령 이내의 병아리는 반드시 32℃ 이상 유지되는 공간에서 길러야 폭설과 추위로 인한 동사(凍死)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계사 온도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사료 섭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룻값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상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사 온도가 20℃ 이하에서 1℃씩 떨어질 때마

다 사료섭취량은 1%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설이 닥치면 산지 가격은 급상승

폭설로 양계장이 파괴되면서 폐사하는 닭이 많아 공급이 줄어든다. 여기에 폭설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는 등 교통대란이 발생하면 입식을 포기하는 양계농가가 속출한다. 아예 계사로 어리장차가 갈 수 없어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폭설로 출하가 감소하면 산지 가격은 강세를 나타낸다.



보고받자 2012년 12월 업무추진 보고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소비홍보 행사 성료



대학로 인파 모여 관심 폭발...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리는 기회

국산 닭고기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젊음의 거리인 대학로에서 깜짝 이벤트가 펼쳐졌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소비홍보 행사를 열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국산 닭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제공, 인디밴드 공연 등이었다. 이번 소비홍보 행사는 누구나 참가해 즐기자는 뜻에서 '놀이터' 콘셉트로 진행했다. 관람객들은 현장에서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국산 닭고기의 장점과 우수성을 체득했다.

국산 닭고기와 수입산 닭고기의 차이점을 설명한 홍보물이 행사장 한편에 설치돼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한 관람객들은 프라이드치킨, 치킨수프, 닭갈비 등 국산 닭고기로 행사장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무료로 시식했다. 대학로를 지나던 많은 시민들이 닭요리의 맛있는 냄새에 반해 길게 줄을 설 만큼 무료 시식 코너는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30대의 국산 닭고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젊음의 상징인 대학로의 특색에 맞게 인디밴드 공연 등을 함께 열어 젊은층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 행사의 성공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국산 닭고기가 수입 닭고기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올해에도 국산 닭고기 소비층을 늘리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대한양계협회, 축산업허가제에 따른 무허가축사 대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



10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교육열 발휘...축산업허가제 시행에 따른 혼란 줄이는데 이바지

(사)대한양계협회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축산업허가제를 바로 알리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사)대한양계협회는 지난해 12월 14일과 17일 각각 충남 홍성 홍농연회관, 경북 칠곡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업허가제에 따른 무허가축사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양계농가 및 양계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육 현장에는 양계농가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총 4시간에 걸쳐 축산법, 축산업허가제의 이해, 가축방역 등이 교육이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사)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사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되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도 처음 실시되는 만큼 교육 대상이지만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축산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해 회원가입한 후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으로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한국계육협회, 유명 정보 프로그램 '생생정보통'에 국내산 닭 홍보



동아일보에 3저1고 건강식품으로 닭 소개...닭 관련 상식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했다는 평가

(사)한국계육협회는 공중파 TV 프로그램과 신문 기사 등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닭고기 정보를 제공해 호평받았다.

(사)한국계육협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방영된 KBS 2TV 방영된 생생정보통에 '대한민국이 사랑한 닭고기, 제대로 알고먹자'란 주제로 참여했다. 이날 방송분은 닭고기와 관련된 시민과 전문가 인터뷰, 2000년대 닭고기 소비량을 소개하며 '닭고기가 가격은 저렴하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좋은 식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전한 변함없는 청춘스타 배우 신성일 씨도 이번 방송에 참여했다. 명동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구이 통닭집에 얽힌 에피소드를 털어놨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국내산 닭과 외국산 닭의 차이도 알려졌다. 국내산 닭은 냉장상태로, 수입산 닭은 냉동으로 유통된다는 것과 국내산 닭이 냉동 수입산 닭보다 훨씬 신선하다는 것을 알렸다.

지난해 12월 12일자 동아일보에서는 '통닭은 어디가고 치킨만...왜 1.5kg짜리를 쓸까'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기사에서는 닭고기 요리의 역사, 세계 공통으로 우리나라 백숙 같은 닭고기 수프가 보양식으로 알려진 사실 등을 설명했다. 또한 닭고기가 3저1고(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저지방, 고단백) 건강식품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고 전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고명한씨 홍보대사로 위촉



개그맨 고명한 씨, "토종닭 사랑해요!"...토종닭 요리로 불우이웃의 언 마음도 녹여

소비자에게 친숙한 개그맨 고명한 씨가 토종닭 홍보를 위해 두 발 벗고 나선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27일 국산 토종닭인 '한닭'을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로 개그맨 고명한 씨를 토종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닭 인증제와 우수성 홍보를 위한 사업 대행사 선정도 완료했다. 앞으로 개그맨 고명한 씨는 TV간접광고(PPL), 포스터, 리플릿 등 토종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사)한국토종닭협회 관계자는 "토종닭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소비 확대를 이끌어내겠다"면서 "홍보사업 비수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닭 산업에 개그맨 고명한 씨가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종로노인복지회관에서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자조금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800여 명이 국산 토종닭 요리를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 행사는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불우이웃을 돌보자는 의미로 올해 세 번째 열렸다.

닭 주 재료 음식만 통틀

닭고기 떡갈비

닭고기 한 마리 전체를 사용한 요리다. 닭고기 특유의 담백한 맛이 살아있어서 느끼한 맛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대추꿀소스를 함께 곁들이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떡갈비 기본재료 닭 1마리(600g), 가래떡 1줄, 밀가루 1T

떡갈비양념 재료 배즙 1T, 양파즙 1T, 매실액 1/2T, 후추, 간장 2T, 꿀 1T, 청주 1T, 다진 마늘 1T, 다진파 1T, 참기름 2T, 다진 생강 1T, 깨 1작은술

유장 재료 간장 4T, 참기름 2T **대추꿀소스 재료** 대추 10알, 마늘 2알, 간장 3T, 꿀 2T, 맛술 1T, 배즙 1T, 물 1컵

Cooking

1. 뼈에서 발라낸 닭고기살을 곱게 다진다.
2. 곱게 다진 닭고기살에 배즙 1T, 양파즙 1T, 매실액 1/2T, 후추를 넣고 버무린 후 10분 정도 재워둔다.
3. 재워둔 닭고기살에 간장 2T, 꿀 1T, 청주 1T, 다진 마늘 1T, 다진파 1T, 참기름 2T, 다진 생강 1T, 깨 1작은술을 넣고 치댄 후 성형한다.
4. 가래떡을 끓는 물에 데친다. 동시에 간장 1T, 참기름 2T를 넣은 유장양념을 만든다.
5. 양념한 닭고기를 넓게 펴놓은 후, 가래떡에 밀가루를 묻혀 가운데 넣고 김밥처럼 말아준다.
6. 가래떡을 넣어 말아준 닭고기를 뜨거운 불로 예열한 프라이팬에 굽리며 익힌다.
7. 대추 10알과 물 1컵을 넣어 대추고를 만든 후 마늘 2알, 간장 3T, 꿀 2T, 맛술 1T, 배즙 1T을 넣어 졸이면 소스가 완성된다.
8. 예쁜 접시에 닭고기떡갈비를 먹기 좋게 썰어 담고 대추꿀소스를 뿌려 완성한다.



건강하자 무릎 통증은 무조건 참는 게 정답??

치료 시기 놓치면 회복 방법 거의 없어...
겨울철 무릎 따뜻하게 하고 스트레칭으로 근력 키워야

양계장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요즘 움직일 때마다 무릎에 저절로 손이 간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불편해서 자꾸 무릎에 더 힘이 간다. 더구나 영하 10℃를 오르내리는 요즘 같은 날씨엔 무릎이 더 추시고 아픈 것 같다.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나이 먹어서 그러려니 생각해서 보냈는데 무릎이 더 나빠진 것 같아 속상하다. A씨처럼 양계장 종사자들은 몸을 쓰는 일이 많아서 항상 무릎 통증을 달고 산다. “매일 무릎이 아팠으니 괜찮겠지”란 방심은 금물이다. 무릎 통증은 더 심해지기 전에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무릎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관절염이다. 두 관절염 모두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진행 속도 빨라 무서운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관절을 둘러싼 활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무릎을 포함해 손목, 발목, 어깨 등 관절이 있는 몸의 모든 부위로 병이 퍼지는 특징이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증세는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관절에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이 염증 등으로 부어오르는 것 등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는 원인은 아직 분명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환경오염 ▲면역력 약화 ▲기름진 음식 위주의 식생활 ▲자세 틀어짐 등이 발병 원인으로 추측된다.

안타깝게도 의학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했다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로 증상을 완화해야 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 후 2년 이상 방치하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된다. 활막, 피막이 두꺼워지면서 염증이 생긴 관절에 변형이 일어난다. 나중에는 관절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의사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 지 2년 안에 꼭 치료를 받아야 관절 변형을 예방하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만약 관절에 발생했던 증세가 심해지면 폐, 심장, 신장 등 장기까지 위협해진다. 다른 장기까지 증세가 나타났다면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퇴행성관절염

퇴행성관절염은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다. ▲관절을 자주 사용해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손상되거나 ▲뼈를 연결하는 근육이 약해져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발병한다.

특히 최근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젊은 세대도 많다. ▲과격한 운동으로 관절을 혹사하거나 ▲비만 체형으로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자전거, 마라톤, 스키, 스노보드 등 무릎을 사용하는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퇴행성관절염이 빨리 발병하는 것이다. 또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살이 찌는 것도 몸을 지탱하는 무릎이 금방 상하게 하는 요인이다.

퇴행성관절염 증세는 ▲오래 걸거나 장시간 서 있기 힘들고 ▲무릎이 떨리거나 무릎 관절이 붓는 것 등이 있다.

퇴행성관절염에 걸렸다면 빨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퇴행성관절염 초기에는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 처방과 물리치료를 하고 관절 운동도 병행한다. 그러나 이미 퇴행성관절염이 꽤 진행됐다면 수술 등 다른 치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손상된 연골은 복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골 손상도가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 외엔 치료방법이 없다.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무릎 관절염 예방법

겨울철에는 무릎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집에 있을 때에도 담요 등을 덮으면 좋다. 무릎이 따뜻하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체중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힘은 커진다. 따라서 과식하는 습관을 버리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멀리 해 체중을 조절한다.

틈틈이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근력을 키우면 무릎에 가해지는 힘이 감소해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또한 칼슘을 적정량 섭취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퇴행성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

